

아이 셋 키우며 생활비 반값으로 줄인 비법

2024. 5. 16.

세 아이를 키우는 이수진 님은 쿠팡 CPLB를 알게 된 후 생활비 걱정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쿠팡이 이수진 님의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CPLB: 곰곰, 탐사, 코멧 등 쿠팡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들을 총칭하는 말로, 쿠팡 자체 브랜드(Coupang Private Label Brands)의 약자입니다.



세 아이의 엄마, 이수진 님

“저는 42살 이수진이고,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세 남매 키우려면 장난 아니죠. 매일 쌓이는 빨랫감에 방은 또 얼마나 더러운지, 치우다 보면 물티슈도 금방 떨어지고요. 세 아이 빨래양에 세제도 금방 바닥나요.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생활비 걱정 때문에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쿠팡 PB 제품을 알게 됐는데, 바로 이거다 싶었죠!”



“제가 코멧, 탐사 제품 찐팬인데요. 제일 많이 쓰는 휴지, 물티슈는 물론 청소용품까지 다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이거 관찰을까?’ 싶었는데 품질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팔면 뭐가 남나 몰라. 저희 같은 엄마들에겐 진짜 고맙죠.

특히 막내가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챙길 것들이 많아서 걱정이었거든요. 쿠팡 PB 제품 알게 된 다음부터는 부담이 확 주니까 이제 계산기 안 두드려도 돼요.”



“사실 마트에 직접 다녀오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쿠팡은 집앞에 바로 배송되니까 그 절약효과도 상당한 것 같아요. 한번은 가계부를 써봤는데 생필품 비용이 절반이나 줄었더라고요.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선 너무 든든해요. 아이들 다 키울 때까지 쿠팡과 함께할 거예요. 어디 가면 안 돼요! (웃음) 쿠팡 사랑해요!”



쿠팡 CPLB 상품은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줄여 고객님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낮은 가격, 좋은 제품으로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겠습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